우리 복지관은 지금

3.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하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사회복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24년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밥심'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진은 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연화사에서 대학생들에게 배식하는 모습.

전국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만행 결연 후원, 긴급 구호 등과 같은 사업은 도움이 절실한 사회와 이웃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실천이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탱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단은 눈앞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관계 단절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만남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저출생 인식 개선 대응 사업, 청년 사찰 음식 무료 제공 사업인 '청년밥심'이 이러한 문제의 시각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재단은 결혼과 출산, 관계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여기며 불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사회복지가 시대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고통과 사회적 과제를 함께 끌어안는 복지 실천은 제도나 사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불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용자의 삶을 돌보고,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결연 후원을 통해 이어진 인연을 지속적인 관계로 가꾸는 역할은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연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물론, 불교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를 단순한 직무 이상으로 여기며, 수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연구 사업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재단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연구로 정리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교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성과는 다시 교육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현장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사회복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재단은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눈앞의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는 시선, 그리고 이를 이어 갈 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노력이 함께할 때 불교사회복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불교사회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어 나갈 것입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① '선명상 클래스' 비움과 채움

불안의 시대, 남산에서 찾은 생명의 숨

서울 남산 충정사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남산-숨, 쉼'을 주제로 선명상 클래스를 열었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잠시 멈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과 마음돌봄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클래스의 주제를 '숨, 쉼'으로 정한 것은 수행의 시작이 '숨'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이마시는 숨은 생명으로부터 오고, 내뱉는 숨은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이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호흡의 순환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 타인과 연결된 고귀한 생명임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홍보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 대부분이 마감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참가자들은 남산의 품안에서 비로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는 '진정한 쉼'을 경험했다.

특히 옻칠 선명상실에서의 명상은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참가자들은 천연 옻칠의 안온함과 치유 에너지가 스며든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웠다.

이들은 선명상을 통해 불안과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일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 A 씨는 "늘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설쳤는데, 내 숨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비로소 '내가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가자 B 씨는 "명상하며 숨과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동안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게 됐다. 이번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나를 돌보고, 타인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남산-숨, 쉼' 주제 선명상 클래스 개설

참가자들, 불안 완화와 긴장 이완 효과

자타 보듬는 선명상 많은 이 함께하길

강사진들은 참가자들의 변화를 통해 선명상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한다. 지도 강사는 "처음에는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명상이 깊어질수록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수행의 힘을 실감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소중히 하는 명상 그 자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명상 클래스'는 불교의 선(禪) 수행이 어떻게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 사례라 생각한다.

도심 속 사찰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펼쳐진 이 짧은 여정은,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제 명상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나와 주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됐는가"를 묻는 수행으로 전환돼야 한다.

남산에서의 숨 고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참가자들의 일상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 작은 떨림이 불교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긍정하고 타자를 보듬는 선명상의 길로 들어서길 서원해 본다. 충정사의 '선명상 클래스'는 2월 '정월마중 선명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④ 검박함이 꽃보다 곱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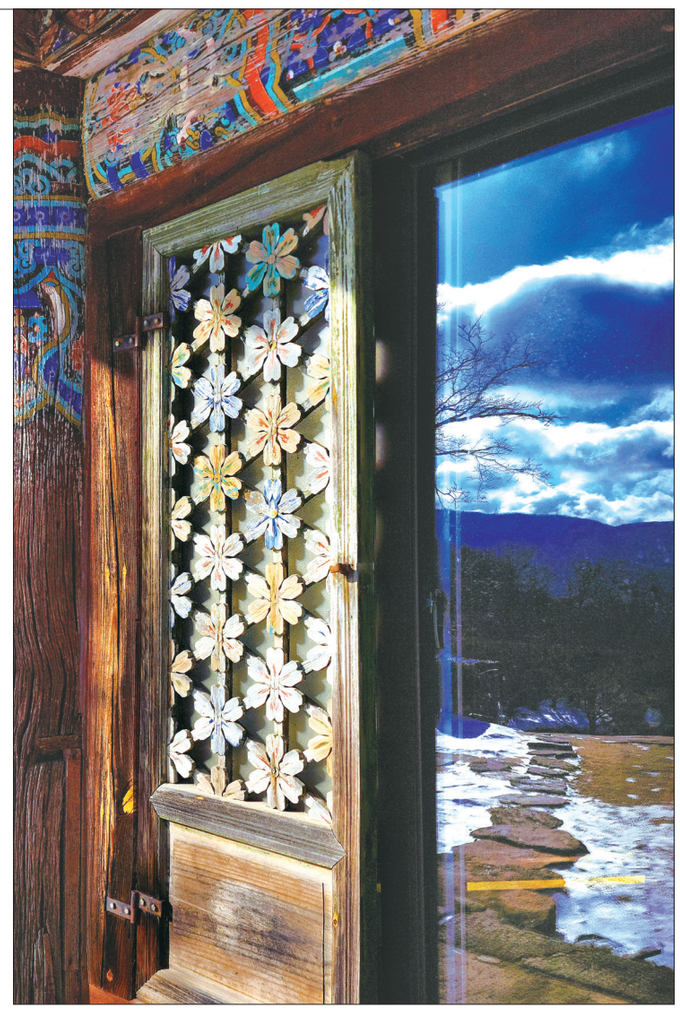
동안거 중의 김천 수도암은 깊이 침묵하고 있었다. 영하의 대기는 최대한 몸을 조여 겨울 산사의 침묵을 옹위한다. 숨도 아껴 쉬어야 했다. 침묵을 훼방하지 않기 위해서. 한 호흡에 한 걸음씩, 징검다리를 건너듯 적멸의 시간을 디뎠다.

대적광전 앞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났다. 열린 꽃문에 또 하나의 세상이 열려 있었다. 유리창이 거울이 되어 머금은 풍경이다. 이 그림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절대고독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서로를 온전히 승인하는 현장이다. 또 한편으론 수도암이 겨울을 나는 진솔한 생활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다.

수도암은 수도산(1317m) 8부 능선 해발 약 1000m에 자리해 있다. 전국의 선방 가운데 사불산 대승사, 오대산 상원사와 함께 가장 추운 곳으로 이름 높다. 그래서 법당 안쪽으로 유리창 덧문을 달았다. 한지 바른 창으로 겨울바람을 견디는 건 사치스러운 객기다.

수도암 대적광전의 꽃살문은 질박하다. 억지 고졸(古拙)로 멋을 내지 않았다. 1969년에 법전 스님(조계종 11·12대 종정 역임)이 중창하면서 당시의 형편에 맞추어 지었을 뿐이다. 꽃살을 만든 소목장은 그 뜻을 신실하게 받들었다. 수도암 꽃살문은 검박함이 꽃보다 곱다.

손영자 작가



수도암 대적광전.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